



친환경농산물자조금
SNS 바로가기



지구를 지키는 농부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커져라 친환경



2025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소식지

발행처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발행인 김상기
편집인 유장수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509호
문의 044-863-6202
기획·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1877-7034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이란?

2016년 7월, 친환경농업인 83%의 동의를 얻어 출발한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친환경농업인의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부족해지며,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이 출범했습니다.

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지역 농협 등이 납부한 거출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재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친환경농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농수산자조금법,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업인과 취급농협으로 한정(추후 유통, 가공 단계 확대 예정)하고 1,000m²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은 납부를 면제하되, 희망시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용 재배시설 330m² 이상 재배 농가는 납부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거출 기준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가에 논과 밭(논을 제외한 지목)을 구분하여 최대 30ha까지 거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논 4원/m ²	밭 5원/m ²
---	------------------------	------------------------

무농약 인증

	논 3원/m ²	밭 4원/m ²
---	------------------------	------------------------

- ▣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개편에 따른 직불금 지급 면적이 대폭 확대(5ha~30ha)됨에 따라, 경감·감면 면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 거출 단가는 그대로, 거출 상한(면적)은 30ha까지 조정되었습니다.
- ▣ 인증면적이 5ha 미만인 96%의 친환경농업인은 거출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 ▣ 거출 기준 변경에 적용을 받는 인증면적이 5ha 이상인 농가는 약 4% 수준입니다.(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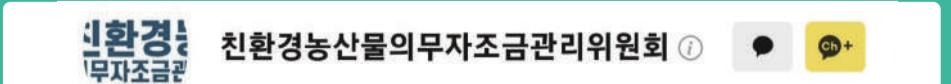
목차

인사말	03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히어로들의 축제	04
친환경농산물만 먹어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09
2025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소식	10
지역협회 소식통	12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13
자조금 소식 NEWS	14
친환경농사에 진심인 아빠랑 딸	
“우리 친환경해요”	18
친환경 청년농부로서의 삶	20
친환경농산물로, 식탁의 영양 가치를 높이다	22
2025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조성규정 개정	24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푸쉬 알림 서비스 받자!!!



친환경자조금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고 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알림 동의를 하시면 청구서와 영수증, 다양한 자조금 홍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친환경자조금 카카오채널을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납부 관련 문의에 적극 응대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김상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친환경농업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91억 원 증가하였지만 친환경농업 인증면적과 친환경 인증농가 숫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친환경 농업인들도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은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2025년을 더 견고히 준비했습니다. 올해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계획으로는 친환경 직불금 확대, 공공 비축 친환경 벼 수매가 인상, 친환경 인증제

개선, 친환경 학교와 공공급식비 국가지원, 친환경 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제도 실시 등 5대 정책 과제를 세우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주 대상자는 논농가였습니다. 밭농사의 경우 논농가 대비 친환경 직불금 인상 혜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친환경 직불금이 확대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인들이 더 나은 생산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 확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농업인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지구를 지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장 유장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농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병해충 증가와 변화무쌍한 날씨 등으로 농사를 짓는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정성껏 농사를 지으며 우리 가족과 국민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더 널리 알리고,

친환경농업인 여러분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의 공감의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과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소중한 자조금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민과 소비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소비 확대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님, 감사합니다! 커져라 친환경!



유장수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관리위원장

기후변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농업·농촌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면적 상한 확대, 비의도적 오염 관련 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직불금 신청 농가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친환경 쌀 신규 농가 신청이 시작되면 그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더욱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인증·유통·소비 등 분야별로 두세 차례씩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해왔습니다. 2026년 시작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히어로들의 축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식문화 행사와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따사로운 햇볕 아래 푸른 어느 유월, 친환경을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농업인들이 세종에 하나둘씩 모였다.

2025년 유기농데이 대축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는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유기농과 밭음이 비슷한 6월 2일을 유기농업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친환경농산물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제 유기농데이가 지난 6월 5일,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유기농데이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지구를 지키는 농부 서포터즈'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열렸다. 전국의 친환경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보인 것. 이곳에서 농부들은 친환경농산물이 왜 좋은지 설명하며, 소비자들과 자연스럽게 직접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소비자들도 원물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 가공식품류 등 유기농 먹거리를 맛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 곳곳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친환경에 대해 소통하며 고민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았다.

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어린농부 드로잉북, 내가 그린 고추화분 체험, 베블맨 베블쇼, 농부 마술사 등 어린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도 제철 피클담기 체험과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사전방문등록과 장바구니 인증, 포토존에서 유기농데이 20주년 응원문구 촬영 인증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모아 파머스마켓 혹은 제로 웨이스트 매장에서 할인받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인스타툰 공모전 당선작 시상과 전시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짧지만 강력했던 하루를 보냈다.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을 통해 특별한 하루로 기억하지 않을까. 함께한 2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이 더 기대되는 유기농데이 축제는 자연과 사람, 미래를 연결하며 친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됐다.

현장 인터뷰



정창수 농부

유기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흰머리 아저씨'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해 잘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라면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기농데이 행사에서도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니 뿌듯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친환경농사를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키워낼 겁니다.



오유미 농부

충청북도 증평에서 무농약 연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신랑과 함께 무농약에 관심이 생겨 연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느끼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재배방법이 친환경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데이 행사는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며 더 뿌듯하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자 인터뷰



박 설

이번에 처음으로 유기농데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유기농을 접하려고 하면 제품을 까다롭게 고르거나 찾아봐야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유기농이어서 걱정없이 구매할 수 있어 좋았어요. 저 또한 유기농업을 통해 원물을 직접 생산해 유기농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솔잎, 정화명

현재 유기농 쌀과 잡곡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런 행사에 자주 참여하다 보니 유기농이라고 하면 더 좋아하고 잘 먹는 것 같아요.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와 계속 참여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에게 맙겨라!



숏폼팀 변은주

식품영양학과를 재학 중이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숏폼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과 무농약, 유기농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흥미를 가져 소비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부레시피팀 김가은

영천에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활동 당시, 농가들을 인터뷰하며 농업현장의 환경적 어려움을 알게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 위의 탄소발자국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친환경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대학생팀 장유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친환경 대외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친환경 콘텐츠 제작은 물론 용기내 챌린지를 통해 보다 실천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숏폼팀 윤나이

영상 숏폼을 중심으로 유기농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각화하여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형 체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대학생팀 김윤서

지리학과에 재학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과 지역농업에 관심을 갖다보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두 발로 땀나게 뛰어다니며 생생한 자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친환경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유기농데이가 성황리에 막을 올린 가운데, 지구를 지키는 농부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이 진행됐다. 농부, 주부, 대학생, 숏폼, 웹툰 등 6팀으로 구성된 46명의 서포터즈들은 발대식에서 11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며 홍보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시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더해줄 서포터즈들의 활동 소감을 통해 그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었다.

제4기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사 6인

“4기 서포터즈여, 나를 따르라!”



1조 농업인 우성철

전북 정읍에서 친환경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청년농부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는 제 농사의 철학이자 이유입니다. 땅과 생명을 아끼는 방식으로 농약 없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며, 농업이 가진 진짜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멘토로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현장의 진심을 콘텐츠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은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눌 예정입니다.

2조 블로그 콘텐츠 최린



저탄소 인증, 무농약 인증, 유기농 전환기 3년 차를 거치며 건강한 채소들을 토경재배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기른 21가지 샐러드 채소로 샐러드 전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통주 보틀숍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최고를 향한 경쟁보다 행복을 향한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3조 블로그 콘텐츠 유희원

지구를 지키는 농부 서포터즈 멘토로 활동 중인 주부 유튜버입니다. 농업과 농부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마케팅 교육을 진행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와 현장 이야기를 대중과 연결하기 위해 서포터즈 분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블로그 글쓰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4조 친환경농산물 관련 레시피 박선희



유기농 작물을 활용한 요리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SNS 콘텐츠 방향이나 레시피 아이디어,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등 실제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5조 정보성 속풀, 영상 신동건

유튜브와 AI 활용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이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정보성 속풀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 제작을 교육하고, 초보자들은 물론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AI 강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제가 가진 콘텐츠 제작 노하우, 속풀 트렌드 그리고 AI 도구 활용법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서포터즈들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실습하고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친근한 멘토로 함께하겠습니다.

6조 인스타툰 콘텐츠 성소희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뱁자까’라는 이름으로 인스타툰과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여러 기관과 인스타툰 분야에서 협업하며 다양한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인스타툰을 어떻게 기획하고 표현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팁과 방향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친환경이라는 따뜻한 주제를 서포터즈 여러분만의 감성과 시선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들이 키워낸 친환경농산물을 만나다.



ORGANIC

친환경농산물만 먹어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봄, 여어어어어어어어름, 갈, 겨어어울’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지 오래다. 매년 여름마다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된 덕분이다. 어쩌면 정말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유난히 길고 더울 여름을 앞둔 지금,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꼽은 ‘기후감수성’이 새롭게 와닿는다.

‘기후감수성’이란?

기후감수성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려는 태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매년 폭염부터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언젠간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상기후의 지속은 농민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한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강력한 실천은 무엇일까. 바로 음식이다.



개인이 기후감수성을 갖는 법

- ✓ 로컬 식품과 제철 식품 소비하기
- ✓ 육식은 줄이고, 식물성 식단 늘리기
- ✓ 유기농, 친환경 인증 제품 선택하기
-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업이 기후감수성을 갖는 법

- ✓ 친환경 원재료 사용하기
- ✓ 친환경 포장, 에코 패키징 도입하기
- ✓ 남은 식품을 기부하거나 사회단체로 재분배하기
- ✓ 기후감수성 캠페인 전개하기



공공(정부, 지자체, 교육기관)이 기후감수성을 갖는 법

- ✓ 친환경 급식 확대하기
- ✓ 지속가능 식품 인증과 지원정책 강화하기
- ✓ 기후교육과 식생활 교육 연계하기
- ✓ 지역의 식량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푸드플랜 수립하기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개인은 실천하고, 기업은 전환하며 공공은 이끌어야 한다.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더 오랜 시간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2025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소식



⊕ 폭설피해농가 모금 및 집행[2025.01~02]

폭설피해를 접수한 농가는 경기도(165농가)와 강원도(1농가)에서 총 166농가였다. 이들을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금을 진행했으며 총 16,115,000원이 모금되었고 의연금은 2월 10일에 지급하였다.

⊕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신규 수도작농가 교육[2025.03~11]

친환경농업이 2023년 12월 기준 4.2%, 4만 6천 농가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업인의 유입과 기후위기시대 가치와 철학을 겸비한 농업인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를 전량 공공비축 매입 및 군급식, 복지용 쌀로 활용하여 친환경 벼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대하고자 협회 내 조직적 회원배가 운동과 확대 친환경 공공비축미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에서 생산된 쌀이 대상이며 2025년 일반벼 공공비축미 등급별 매입가격 대비 5%p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신규 친환경 수도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이해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인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방지 및 대응하기 위해 8개 시·도에서 32회 진행했다.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사업[2025.05~11]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 인증의 생산관리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4개 권역을 구분하여 교육을 추진했다. 권역별로 농산 35회, 생산관리자·재배기술 1회, 기관별 가공·취급 교육 1회 등 의무교육 105회와 생산관리자 12회를 진행한다. 협회는 1권역(경기, 강원), 3권역(전남), 4권역(경남, 경북)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식제고 행사사업[2025.06~10]

친환경농산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행사사업으로 유기농데이,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한국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를 진행한다. 유기농데이 기념행사는 6월 2일이라는 상징적 기념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확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소비 확대를 호소하고 미래세대의 농업과 가치소비 계기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유기농데이는 6월 5일에 세종 싱싱장터에서 개최했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전시하고 그동안 달성한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전시·체험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다. 2025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이 모여 친환경 실천 결의를 도모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는 세계적 흐름 확산에 맞춰 탄소중립의 선봉장인 친환경농업인들의 비전 제시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전파하기 위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의 친환경농업인 간 다양한 정보와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FARM EARTH

④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교육 사업(2025.05~11)

친환경농업 교육 사업은 친환경농업인들의 토양관리, 양분관리, 병해충 방제 등 생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감도록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로 이어지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도록 소비자 공감 형성에 목적을 둔다.

이번 교육은 지역별 현장조직을 갖춘 전국단위 친환경농업조직에서 지역별 현장에 맞는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과 신규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견학 등 리더십 양성 및 마케팅 교육, 친환경농업 소비 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 및 영양(교)사 간담회, 친환경농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⑤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2025.05~11)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주도형, 지역맞춤형 소비 촉진 아이디어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소비 홍보사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농업 신뢰 확대 및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은 친환경 농부시장, 도농교류, 소비자 홍보 판매, 제철식재료 활용 건강요리 체험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도협회, 시·군협동조합, 친환경단체 등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⑥ 제6차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수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

2025년은 제5차 5개년 계획 이행 마지막 해로 그간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주요 안건은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 방향 설정 등이며, 위원은 집행위원의 추천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총괄반 산하에 정책·제도반, 환경관리반, 인증제도반, 생산·기술반, 유통·소비반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반별로 세부과제를 선정한다.

⑦ 대선 정책 대응 보고

대선 전 후보가 있는 정당 정책협약식을 제안했다. 민주당 농업공약에 친환경인증면적 10% 확대와 우리 협회 정책 5대 과제를 제안했고, 경실련에는 농업인 단체와 대선공약 선정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대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⑧ 산불피해농가 모금 및 집행(2025.05~06)

산불피해를 접수한 농가는 경북지역 총 80농가였다. 피해농가를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모금을 진행하여 1,215만 원을 모금하였고, 자조금 2,400만 원을 합하여 총 3,615만 원을 산불피해 의연금으로 지급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강원연합사업단은 3월 18일 이마트 원주점에 입점해 강원농산물 판매 확대에 나섰다. 또한 강원 임산부꾸러미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올해 첫 국비사업으로 뿔나방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올해 진행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 책정을 희망하고 있다. 협회와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도 친환경농업과 소비촉진 자체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주 이마트 로컬푸드매장에 안착하면서 엽경채를 중심으로 일평균 100만 원 매출을 예상하며, 본격 신선 작기에는 품목과 매출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협회와 사업단은 열무 약 7톤을 자체 약정하여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토마토뿔나방 방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중순까지는 뿔나방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친환경 약제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촌진흥청에 요청하여 약제 예산을 별도 편성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수매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원예분과별 수매 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건강과일사업 일환으로 지난 5월 참외, 토마토 등 출하 산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품위 협의를 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5, 6월 출하품목을 취합하고 주요 출하 품목 현장을 방문하여 임산부 양파 수매 물량 및 방식을 협의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농수산진흥원과 25년 예산 감축에 따른 출하 품목 및 수매 품목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협회

1월 정기총회 회장을 선출하고, 2025년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공공급식 위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협회

경남지역 산불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세웠다. 자조금 학교급식에 관련된 학부모와 영양사들이 모인 행사를 추진했다. 벡스코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해 사업 관련 집행위를 보고받았다. 5월 22일 학교급식연구소 영양사 교육을 실시했고, 6월 2일 텃논조성 사업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협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협회에서 경북도청에 산불피해조사를 요청하였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해 전국에 성금모금 후 피해농가에 일괄 지급되었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협회

지난 2월 27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협회 사무실을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으로 새롭게 이전하였다. 3월 12일 전남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행사 지원을 요구하여 유기농데이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와 프로그램 상장 및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과 서삼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과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과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6월 5일 유기농데이(세종)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세종로 로컬푸드 싱싱장터에서 열린 장터 부스에 참여하여 친환경 신선농산물 등을 판매하였다. 6월 4일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동 TF회의를 개최했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공급 방식 등을 협의하였다. 6월 7일 전남부지사, 전남교육청 교육감,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유기농 글짓기, 유기농 골든벨, 청소년 춤경연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7월 3일~4일 1박2일 일정으로 2025년 한일 청년교류 청년농아카데미를 전남 보성에 있는 우리원에서 개최했다.



전라북도 친환경농업협회

3월 21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신규 수도작 교육에서는 신규자 교육 참석이 미비해 앞으로 더 많은 신규자의 참여를 기대한다. 4월에는 GMO 감자승인 농진청 규탄 기자회견, 익산시협회 정기총회, 집행위원회 줌회의, 고창군 친환경 쌀의 날 및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 대선공약간담회, 전북식생활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열었다. 5월 12일에는 전북협회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협회

수도작 교육에 기존 농업자가 대부분 참여하여 성황을 이뤄, 추가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충남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관련 도청협의, 부여 친환경벼 재배기술 교육,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충남 유기농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협회

2월 27일 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청주에서 신규 수도작 교육을 1회로 축소 운영했다. 5월에 충북 친환경 텃논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진천농다리에서 충북유기농데이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 제천에서 열릴 충북도대회를 준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2024년 결산 정산을 완료하고 2월 26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4월에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실행위 회의, 농업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준비위 회의, 제주지역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현장 접수,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 제주지역 간담회, 제주농업 정책 토론회, LMO 유채 축제지 모니터링 및 2025년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법인담당자 모임, 농림축산식품부 '제6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인증제도반 2차 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5월에는 제주농민대회,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2차 대표자 회의, 제주농민의길 회의 등을 개최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하늘이 농사를 짓고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가뭄과 폭염, 폭우와 한파가 잇따라 발생하고 병충해 발생 시기는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 생육주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현재 농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저하되며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 국민의 생활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 농업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첫째, 작물 선택의 변화

과거에는 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준비하는 ‘달력 농사’를 활용했다. 하지만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달력 농사’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농업인들은 재배 작물을 바꾸기 시작했다. 배추 대신 고구마를 심거나 사과 대신 포도를 택하는 등 기후 적응력이 더 좋은 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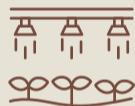
넷째, 지역 순환형 농업으로의 전환

기후위기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에도 대비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재활용하는 순환형 농업이 확대되고 있다. 퇴비나 사료를 직접 만드는 방식, 농촌 에너지 자립 모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물 관리 기술의 고도화

기후위기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졌다. 빗물 저장 시스템, 점적관개(드립 시스템), 수분 센서를 활용한 정밀급수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생태농법과 탄소중립형 농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농 자재를 활용하는 생태농법이 주목받고 있다. 더 나아가 농업 자체가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도록 하는 탄소중립형 농업도 시도되었다. 여기에 무경운 농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농촌지역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농으로 토양과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를 책임지는 소비자의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투자와 선택이 필요할 때이다.



자조금 소식 NEWS



④ 2025년 상반기 TV·라디오 캠페인 요약

공중파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인 '12시엔 주현영', '황제성의 황제파워' 등 4곳, 디지털 라디오 청취층을 타깃으로 한 MBC와 SBS 채널 각 16개 프로그램에 CM송을 송출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SNS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상반기 주요 행사인 유기농데이에 맞춰 SBS, MBC 대표 라디오 10개 프로그램을 통한 협찬 광고를 진행했다. 협찬 멘트를 통해 유기농데이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20주년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거쳐라 친환경!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CM송



④ TV광고 송출 및 '슈퍼맨이 돌아왔다 협찬광고'

IPTV인 SK Btv, KT Genie TV를 통해 약 90여 개 채널에서 500만 뷰 이상을 확보하며, 전국 3,000만 가구 대상 친환경농산물 광고를 송출해, 다양한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광고를 노출했다. 신뢰도 높은 YTN 채널 자막광고 집행을 통해 뉴스 시청자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장동민·오종혁 패밀리가 출연해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특징과 '유기농 vs 무농약' 차이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함으로써 전 세대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하는 결과를 얻었다.



④ 유튜버 '브로드플레이' 재능기부로 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제작

디제잉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브로드플레이' 채널의 재능기부로 친환경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제작했다. 친환경 배 농가작업 현장 영상과 함께 상쾌한 음악을 통해 소비자에게 색다른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개하고 해당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청년층 대상 호감도를 증대시켰다.



④ 친환경농업인 인터뷰 콘텐츠 제작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인터뷰 및 ASMR 콘텐츠를 제작했다. 인터뷰 콘텐츠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농업인의 노력과 현장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각 지역 촬영 시에는 농산물을 섭취하는 장면과 자연의 소리를 담은 ASMR 영상도 함께 제작해, 친환경농업의 건강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영상 공개 시에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④ SNS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확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발행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52 건의 카드뉴스와 10건의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친환경농산물과 농업의 가치뿐 아니라 제철 농산물 소개, 활용 레시피 등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일상 속 친환경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④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서포터즈

친환경농산물 정책 홍보 및 친환경농업인 소개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 중이다. 서포터즈는 농업인 인터뷰, 수도권 대학생 참여, 농수산대학교 연계, 레시피 제작, 영상·웹툰 콘텐츠 등 분야별 홍보대사를 비롯하여 총 46명을 선발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SNS 내 영향력 있는 홍보대사를 지정해 콘텐츠의 전문성과 확산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6월 5일 유기농데이 기념식에서 열린 발대식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④ 신문지면 광고

2025 유기농데이 행사 일정 안내와 친환경농업의 가치,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및 농업신문내 지면광고를 집행했다. 주목도가 높은 전면광고와 확산성이 높은 온라인 배너 집행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행사 참여를 유도했다.



④ TV홈쇼핑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2025년 TV홈쇼핑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공영홈쇼핑의 지원을 받아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내 10회 친환경농산물 판매방송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친환경 농기들의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했다.



⑤ 대형유통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사와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했다.

행사기간 동안 농협하나로마트는 전국 62개 지점에서 최대 44% 할인, 이마트는 전 지점에서 최대 40% 할인, 롯데마트는 전 지점에서 지정 카드 결제 시 정액 할인을 제공하였으며 온라인몰행사도 병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광고 전단(POP)을 통해 유기데이(6.2)를 함께 홍보함으로써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⑥ 소비자생협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2025년 소비자생협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이 진행됐다.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한 판촉행사를 진행해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행사 품목에 대한 판촉활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⑦ 백화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2025년 백화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했다. 행사기간 동안 전 지점에서 정상가 대비 20~50% 할인행사 진행은 물론, 오프라인 유기데이(6.2) 홍보, 대외 언론 및 SNS, LMS 발송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⑧ 2025 대학생협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천원의 아침밥 및 단체급식을 통해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통한 미래세대 대학 청년층의 친환경농산물 호감도를 증대시켰다.

④ 전라남도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에서 2025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유기농데이 사은품 증정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자 대상으로 친환경 자조금을 홍보하며 각종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경험을 제공했다.



④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전라남도의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판매방송을 진행하고, '커져라 친환경' 홍보영상을 방송 중에 무료 광고로 송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를 다각화하고 전라남도 내 친환경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④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7개 이상의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진행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와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친환경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한 수급안정

친환경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한 수급안정 사업을 진행했다. 유기농 쌀을 사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가 판로를 개척했다. 특히 '떡찌니'의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공식품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식 제고의 효과에 기여했다.

교육 및 정보제공

④ 텃논조성

2025년 친환경 텃논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직접 텃논을 조성하는 체험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 전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에는 총 9개의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④ 신규 친환경 수도작 농가교육

신규 친환경 수도작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신규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작 농업인과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친환경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적인 친환경 유기 농업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했다.

④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 교육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작목별 친환경 교육과 친환경농업 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생산자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친환경농사에 진심인 아빠랑 딸 “우리 친환경해요.”

땅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품을 내주고, 동물이 뛰놀 수 있게 곁을 내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땅 덕분이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는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람이 해야 할 기본이라는 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량배 부회장과 딸 태희 씨의 생각이다. 친환경농사에 대한 부녀의 생각을 들어보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농사

농사가 천직이라는 사람이 있다.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부는 부지런함과 고단함의 대표 직종인데, 그렇지 않다면 농사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것. “귀향한 지 1년 만에 아버지를 강제 은퇴시키고, 경영체 등록을 해서 지금껏 제 마음대로 운영 중입니다. 남들이 힘들다는 농사일이 저에겐 너무도 쉬운 일이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즐긴다지만, 그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인 다역을 도맡고 있다. 마을 이장부터 농촌마을종합마을사업 위원장, 서산시 친환경벼출하회장, 농산물학교급식출하회장, 지속가능발전 서산운영위원장, 충남연합사업단 대표, 농정전

환실천네트워크 회장,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회장까지. 하는 일만 열거해도 숨쉬기 버거울 정도다. 그런 그가 농사일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안정적인 식량작물 위주로 작물의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활동이 늘어났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벼농사를 주요 작물로 키우고 직거래를 위한 맞춤형 농사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관행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다고 알려진 친환경농사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전량배 부회장은 친환경농사가 더 쉽다고 일축했다.

“2005년 친환경 인증을 받아 현재 유기농 논농사만 6ha 정도 짓고 있습니다. 약 주는 것보다 풀 깎는 게 편하고, 힘들지 않아요. 옥수수는 친환경이지만 아직 인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꽃가루 때문에 국가 인증은 받기 어렵고 자주 인증만 했어요.”

텃밭에 흙냄새를 선택한 딸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큰다고 하지 않던가. 전량배 부회장의 딸 태희 씨도 부모님을 따라 친환경농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직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이 백수라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자신의 농사를 짓는 딸이 그저 기특하다고.

태희 씨는 현재 생산농을 목적으로, 아버지로부터 100평 정도의 땅을 빌려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중이다. 아직 21살의 어린 나이지만, 농부로서의 마음가짐만은 21년 베테랑 못지않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친환경농사를 시작했지만,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경운까지 하지 않는 유기농을 하고 싶거든요. 경운은 일시적으로 영양가 있는 땅을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땅속의 탄소와 풀씨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잡초를 많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 밭은 모두 삽으로만 일궜어요.”

인간은 결국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은 태희 씨는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간다며 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호주에서 청년농업인 연수를 받을 때 다양한 유기농법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밭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생작물을 키워 서로 완충작용을 하도록 돋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퍼머컬처 농법을 실천 중입니다.”

퍼머컬처 농법은 비료나 과한 거름도 주지 않고 토양이 숲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주는 농법이다. 땅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즉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길이란 것. 과일나무의 벌레를 쫓기 위해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벌레가 싫어하는 민트나 허브류를 심어 자연스럽게 쫓는 방식이다. 그래서 태희 씨의 밭에는 작물 뿐만 아니라 약초와 향신료도 많이 심겨 있다.

아빠와 딸이 친환경농업을 고집하는 이유

“작년에 벼멸구 때문에 농사를 망친 농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유기농 필지였던 우리 동네와 옆 동네는 벼멸구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환경 벼는 벗짚이 자연적으로 강하게 키워져 해충이 먹이 활동하는 게 힘들거든요. 흥명나방 같은 경우 벗잎을 맡아서 먹는데, 유기농 벼는 아예 잎을 맡지 못할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 해충도 벼틸 수가 없는 거죠.”

유기농 필지는 자연적으로 강하게 키워지므로, 유기농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후에 둔감해지고, 수확량도 대동소이하다는 게 전량배 부회장의 설명이다. 아버지의 설명에 딸 태희 씨도 한마디를 보탰다. 땅속 다양한 토양생물이 살아 있어야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자신에게 친환경농업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하자, 아버지와 딸은 모두 ‘삶’이라고 입을 모았다. 태희 씨는 대지를 어머니에 비유하며 “우리는 땅의 자식이니까 농사를 짓는 게 곧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전량배 부회장은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자 수단이며, 또 사람들의 관계”라고 전했다. 농업은 세대로 전수되고 승계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 지구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부녀의 큰 결심을 응원한다.



아빠와 딸이 생각하는 친환경 청년 농부로서의 삶

흙냄새 속에 꿈을 심고, 땀방울로 미래를 키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농부다.

각박한 도시를 떠나 자연을 택한 이들은 단순한 귀농이 아닌 삶의 태도이자 자신이 가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농사를 짓고, 땅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식탁에 올리는 일. 이 일을 3대째 이어나가고 있는 부녀가 있다.

바로 권홍중 농부와 그의 딸 민서 씨다. 이들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농산물로 우리는 더 건강한 식탁을 만나고 있었다.



🍅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엔 안타까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흙을 만지고, 땅이 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자란 권홍중 농업인.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농사 일을 하던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엔 마스크도 없이 농약을 쳐서 농사꾼들이 농약에 중독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권홍중 농업인의 아버지 또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게다가 농약으로 키워낸 음식들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단다. 그런 이유에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사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고.

“처음 귀농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기만 했는데 다 행히 형제들도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어서 노하우나 관리 방법,

판로개척을 다 해놓은 상태라 떡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어요. 방법과 판로개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친환경농업이 농사 짓기 훨씬 좋아요.”

많은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관행 농업만큼 소득이 높지 않아서다. 이 문제에 대해 권홍중 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느냐에 따라 일반농사보다 30% 정도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권홍중 농업인의 생각이다. 또 내가 정직하게 키워낸 농산물이 건강한 식탁을 만들고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며 적극 추천했다.

“우리 딸한테 회사 그만두고 농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과거엔 여자가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었지만 세상이 좋아지면서 많은 농사장비들이 기계화되고 있고, 스마트팜 등과 같은 편리한 것들이 생겨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 젊은 농업인이 건강한 땅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의료기기 회사 해외 영업팀에서 1년 정도 재직하며 부모님과 달리 도시생활을 시작한 딸 민서 씨. 안정적이고 재밌기만 했던 직장 생활이었지만 내 것을 판매하고 싶다는 갈증이 생겨날 때쯤 아버지에게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제안받았다고. 그 이후 마음에 불씨가 커져 농사일에 뛰어든 지도 벌써 8개월 차다. 민서 씨는 단지 급식 위주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1차원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 SNS 등을 적극 활용했다. 자신의 브랜드인 ‘다잘커팜’을 론칭하며 네이버 스마트팜, SNS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는 고객리뷰가 많이 달려야 업로드 랭킹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케팅비용이 많이 들어가 걱정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공구를 했고 이벤트를 열어 네이버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홍보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구매율도 많아지고 고객님들이 지인에게 홍보를 해주시기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스물아홉, 그녀는 누구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정이 커졌다. 직접 기른 자신의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유통방식을 새롭게 구현하고 판매해 나갔다는 점이 매우 뿌듯했다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니다.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여긴 왜 더 비싸냐고 물어보실 때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은 관행 농법보다 어렵고 불리할 때가 많은데 그것들이 가격들로 책정되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친환경농산물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예비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껴 망설인다.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과 두려움도 생긴다는 것. 그래서 민서씨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노력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두려움에 있어서 친환경 청년 농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두 부녀의 생각이다.

“제가 해보니까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겁먹을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청년 농부들이 가진 열정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농법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는 언제나 따라올겁니다.”

권홍중 농업인은 앞으로 자신의 딸이 테두리 안에서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닌 새로운 발판을 넓혀가는 농사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친환경농업의 판로를 개척해나가며 1차 농업에만 안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 온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를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아닌 나와 지구를 지키는 선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식탁의 영양 가치를 높이다



현대는 전 세계의 다양한 먹거리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글로벌푸드 시대입니다.

동시에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속노화(slow aging)’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 본연의 품질과 건강함을 지켜내어 소비자의 건강과 만족을 높이는

식품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산물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상 영양전문가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질환이 있는 분들의 식단 관리를 28년째 돋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 좋은 영양 관리란 식품의 선택이나 조리방법, 가공방법, 섭취량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걸음은 원재료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를 잇는 맛집,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서는 맛집도 하나같이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가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재료의 선택이 첫 번째, 그 다음 건강한 조리법으로 건강밥상은 완성됩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를 현실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건강한 밥상’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올바른 식재료로서 가지는 영양학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산화 영양소의 높은 함량

친환경농업은 식물이 외부 환경에 저항하며 생겨나는 보호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노화를 늦추고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과식, 환경 공해, 스트레스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항산화 영양소는 굉장히 가치있는 부분입니다.

2. 미네랄과 미량영양소의 풍부함

친환경농업으로 관리된 토양은 화학비료로 인한 미네랄 유실이

적어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등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미량 영양소의 밀도가 더욱 높습니다. 미네랄은 세포의 재생과 회복, 대사 활성화에 기여하여 저속노화를 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편의 식품, 정제 식품으로 인해 불균형해진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3. 낮은 유해물질 농도로 신체 노화 방지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제초제 같은 화학적 잔류물 농도가 낮아 몸속의 독성 물질 축적을 최소화하고 해독 부담을 줄입니다. 그만큼 세포 기능 유지와 노화 방지에 영양소를 더 집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영양 안전성 확보에도 중요합니다.

4.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풍부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풍부합니다.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며 저속노화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뿌리부터 껍질까지 전체를 섭취할 수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식이섬유의 너무나 좋은 급원이 됩니다.

5.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

친환경농산물은 영양소가 풍부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글로벌 푸드 시대에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지속 가능한 식문화 확산을 선도합니다.



이렇듯 영양가치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균형잡힌 식단을 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위바위보 식사법**’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가위

매끼 두 가지 이상의 채소와 반찬 선택하기



바위

탄수화물은 내 주먹 크기 만큼(밥, 면, 빵 등)



보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 1가지 선택하기
(예: 두부, 생선, 살코기 등)

여기에 덧붙여 오늘 나와 내 가족의 밥상에 올려질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친환경농산물은 현대인의 건강, 환경,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선아 교수

현직

한국식영양연구소장(식품치료센터)

단국대학교 식품영양정보학과 외래교수

한국영양학회 대의원

학력 & 경력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 석사, 박사
(영양학)

식품치료 임상경력(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병) 25년 / 약 1만 5천 명 이상 식이요법 상담
전문 임상 영양사

연성대학교, 용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식품영양학과
외래교수 역임

방송 및 강의

MBC 기분좋은 날, SBS 좋은아침,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N 엄지의 제왕, TV조선 질병의 법칙 등 다수 TV 건강
프로그램 전문가 패널 출연 중(1,000회 이상)

전국 시청, 기업, 공무원 등 건강특강 600회 이상

2025년 친환경직불제 확대 개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조성규정 개정

산정 기준

유기농(논 4원, 밭 5원), 무농약(논 3원, 밭 4원)

* (논/밭의 구분) 인증시청시 실지목이 논인 경우는 논 단가, 그 외 밭 단가 적용
(밭은 논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로 임야, 잡종지, 시설재배 등 포함)



세부 변경 내용

- ① 거출금 단가 동일
- ② 거출 감면·경감 기준 조정
- ③ 부과기준 단순화

기준		변경	
경감	(논) 5㏊ 초과 ~ 10㏊ 단가의 50% 적용 - 유기농 4원 → 2원/m ² - 무농약 3원 → 1.5원/m ²	삭제	경감기준 삭제 - 논/밭 구분없이 기준단가 100% 적용
감면	(논) 10㏊ 초과 면적 (밭) 5㏊ 초과 면적	조정	거출한도 30㏊ 까지 확대 30㏊ 초과 면적 감면
면제	가축사료용 조사료 생산농가 납부 면제	삭제	조사료 납부 면제 조항 삭제 - 산정기준에 따라 전액 납부

2025년 거출 단가는 그대로

거출 상한(면적)은 조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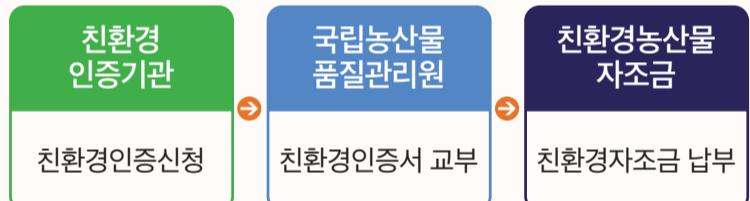
- 친환경 인증 규모 감소와 이에 따른 국고 보조 감소, 일부 납부 대상 제외 농가와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개편에 따른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이 5㏊에서 3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④ 인증면적이 5㏊ 미만인 96%의 친환경농업인은 거출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 거출 기준 변경에 적용을 받는 인증면적이 5㏊ 이상인 농가는 약 4% 수준입니다.

⑤ 친환경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친환경인증면적을 기준으로 개인/단체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인증유지기간 중 1년간 1회 납부합니다.

- 납부대상 : 친환경 인증면적 1,000m² 이상 농업인(단, 시설은 330m² 이상)
- 납부기간 : 친환경인증서 발급일 이후 년 1회
- 납부방법 : 자조금 사무국에서 지정한(가상) 계좌



2025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9.19㈯ - 20㈰ |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 9월 19일 (금)

13:00 | 레크리에이션및DJ와 함께 캐리비티
17:00 | 대회식
18:20 | 저녁식사
19:30 | 친환경 전국노래자랑 (축하공연)

· 9월 20일 (토)

09:00 | 폐회식
10:00 | 지역별 선진지 견학 및 지역문화탐방

· 부대행사

불거리
특별홍보관(경기, 양평), 지역홍보관, 농기자재 전시관, 친환경농업기술전시관, 친환경농가공품 홍보관
배울거리
환경농업 국제심포지움(한국유기농학회), 학교급식 실천사례 공유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품목별 미·간담회(협회 유기과수수위원회·친환경농업위원회)

먹거리
친환경전통주 시음전시
파머스마켓
먹거리장터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